

예수 부활 대축일

숨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
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
워져 있었다(요한 20, 1b).

기도서 278 면(B해)
제1독서: 사 도 10, 34a. 37-43
제2독서: 골 로 3, 1-4 또는
1 고린 5, 6b-8
복 음: 요 한 20, 1-9



1985년 부활 메시지

교구장 박 정 일 주교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과 함께 기쁜 부활 대축일을 맞
이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
에게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구원의 완결이며 우리 믿음의
주춧돌이 되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주일
을 축일 중에서도 가장 성대한 대축일로 기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신교 200주년을 기념했고, 금년
한국교회 제3세기의 새로운 장을 여는 증거의 해에 맞이
하는 오늘의 부활 대축일은 우리 모두에게 각별한 감명
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교 부활의 신비를 깊이 음미해 봐야 하겠습니다. 보
통으로 빠스카의 신비라고 하는 부활의 신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폭
넓게 예수님의 "복된 수난과 죽은 이들 가운데서의 부활
과 영광스러운 승천"(전례헌장 5항)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
서 우리 죄의 대가인 고통을 자원하여 받으시고, 십자가
상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
수께서는 죽음을 당신 전능으로 이기고 부활하시어 영광
되어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수난과 죽으심과 부
활 승천을 통하여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
을 우리는 빠스카의 신비, 또는 부활의 신비라고 합니
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으로 이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
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비는 그냥 기념하고 경축만 하는
것으로 끝낼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철두 철미하게 살아야 하며, 자기 안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으
심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수고 수난
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죄
의 결과인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감수함으로써 우리
죄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도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찬상 영광으로 들어가야 한다
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비는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는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전례를 통하여 이 부활의 신
비를 생활하고 기념하였습니다. 사순절의 긴 기간동안,
특히 성주간의 성대한 예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수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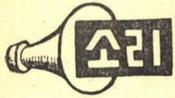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였고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다가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
운 승천과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
심이 되는 예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
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
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기뻐하는 우리에게 성교
회는 사도 바울로의 말씀을 빌려서 부활을 지낸 우리들
의 새 삶에 대하여 일깨워 주십니다. 사도 바울로는 고
린토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 낡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버리고 다시 순수한 반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었으므로 이제 여러분은 누룩없는 반죽이 되었습
니다"(1고린 5, 7).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를 없애 주시기 위하여 속죄양으로 희생 되심으로 우리
는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는 여러가지 죄스러운 낡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버리고
진실과 성실로써 누룩없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
해서 부활절을 지낸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의 이러한 삶은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밝게 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천주교회가 200주년
을 성대하게 지내면서 바라고 내 걸었던 "이 땅에 빛을"
이란 목표를 실지로 실천하는 길이며, 금년 "증거의 해"
를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가정과 직장과 사
회 안에서 진실과 성실한 생활로써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 아직도 낡은 누룩
과 어두운 구석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런 것들을 없이 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
리고 그것은 말과 호호로써가 아니라 몸소 실천하고 표
양을 보임으로써 해야 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야고브 2, 14 이하)이며, "실천이 없는 사랑은 울러
는 정"(1고린 13, 1)과 같다는 성경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쁜 주님의
부활 대축일을 맞이 하였습니다. 부활의 신비는 우리의
새생활을 촉구합니다. 예수부활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안
에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사회가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가
득 찬 주님의 왕국이 되기를 기원하며 만강의 축복을 보
내는 바입니다.

1985년 부활절



무덤을 막은 돌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 나셨다...! (루가 24, 34)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마르코 16장 6절). 십자가의 아픔과 죽음의 슬픔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는 항상 희망을 숨쉬며 산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우선 나 자신부터를 죽여야 한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利己)와 아집(我執)을 죽여야 한다. 나만이 항상 옳다고 여기고, 그래서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돌심장을 깨뜨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죽음이다. 그러나 이것은 곧 아픔이고 슬픔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한다. 그렇지만 내 안에서의 십자가와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다. 그렇게 되면 예수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고, 부활절의 의미는 단순한 기념식에 불과하게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돌무덤을 깨뜨려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의 슬픔을 풀때는 제도적인 악을 때려 부수는 일이다. 여기에는 특별한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 구조적인 악을 구축해내는 세력들의 이기와 아집을 녹여내는 뜨거운 기도, 그것을 부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가진자들의 폭력은 실로 무서운 것이다. 양심과 정의를 범죄라고 믿도록 강요하는 폭력,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조장하는 폭력들이 바로 그것이다. 정치적 보복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언론기본법이나 노동관계법도 그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부활절이 우리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때묻은 겹질들을 벗는 아픔을 살자.

예수 부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신지 3일만에 살아나신 역사적 사건이다.

예수는 예언대로 영광스러이 부활하시어 인성으로써 당신의 천주성을 증명하셨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바탕이며 신앙생활의 중심이다.

□ 교회의 공식 가르침

부활에 대한 교회의 공식 가르침은 예수의 부활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즉 예수는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여 더 이상 죽지 않으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니는 그분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또한 그분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이다.

□ 부활의 목적

예수께서 부활하심은 사도 바울로가 언급한 대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게”(필립 2, 7-10)하기 위함이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예수의 많은 기적 중의 기적이 부활이요, 모든 말씀과 행적이 이 부활로써 증명된 것이다. 사도 바울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 사도 베드로는 “하느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 주셨다”라고 하였다.

또한 부활은 우리 죄의 속죄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죄로 인하여 잃었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 주셨다.

□ 우리 부활의 근원

이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가져다 주었는가를, 우리 부활의 예표이며 근원이 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부활은 우리의 육체적 부활뿐 아니라 세례를 통한 우리의 영적 부활의 근원이 된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순 정 이 산 채

너는 영원히 잠이나 자라.



군산 태 광 약 국

☎ ② 1800

구시장 사거리

교우 여러분의 만성질환 및 건강상담

※ 전북의료협동조합지정병원

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비뇨기과
원장 전문의 **최昌基**(루가)
부설: 임상병리검사실
임상병리사 임윤자(글라라)
☎ ③ 1719·④ 0616(삼담전화)
(구역전오거리·필동로 동편 2층)

고려페인트 대리점

* 각종 페인트 도산매
* 공사청부 * 집수리 전문
* 각종 보수공사 일절 문의 상담

대한 도장공사

김 의 화(요셉)

☎ ③ 4874, ④ 6522

전주 서노송동(중앙성당 옆)

KS 표시 허가공장
벽돌, 불록, 보도블록,
보·차도 경계블록, 콘크리트 근가

신흥 콘크리트

대표 이교성(요셉)

전주시 효자동 2가 53-2

☎ ③ 0616·④ 6415



□ 「주님의 날」 공소 사목지 발간

200여곳에 공소를 둔 우리 교구는 공소 사목에 무심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화 현상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역 단위의 공소제도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가 진지하게 미치지 못하는 솔직한 마음 아픈 일이다.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무엇보다도 공소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활성화와 보다 깊은 신앙을 돕기 위해 교구 홍보국에서는 공소사목을 위한 작은 월간지를 발간한다.

「주님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그 창간호를 내게 되는데……

매월마다 해당되는 주일의 공소 예절을 중심으로 공소실정에 맞는 강론과 전례해설, 농사정보, 교리상식, 그리고 이야기 나눔 등을 실고 공소탐방도 소개하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내용으로 각 공소에 보내지게 된다고……

부활절을 맞아 뜻깊게 탄생한 이 책자가 모든 공소 신자들에게 좋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 성전을 가꾼다

새봄을 맞아 성전 가꾸기가 한창이다. 신중 본당에서는 신축성당으로서 그동안 정리가 미비했던 주위환경 정리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 본당 신자뿐 아니라 공소의 신자들 모두가 서로 합심하여 성전 가꾸기 운동을 벌였다고—

본당 진입로의 도로공사와 담장을 새로 쌓는 공사는 물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정원수와 화초를 봉헌하고 신자들이 자진해서 작업에 나섰다.

우리 성전은 우리가 가꾼다는 의의가 모든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일차와 공동체 의식에 감탄(?) 본당 발전에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진다고 신부님은 물론 모든 신자가 가슴 뿌듯한 마음들이다.

봄이다. 우리 성전은 우리 손으로— 신축성당의 일치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본당 가꾸기에 관심을 가지자.

□ 순정이 명상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자

차범근—, 유명한 축구선수다.

그가 말을 잘해서 유명한가? 얼굴이 잘 생겨서 이름있을까? 아니다. 남은 길은데만 쓰는 발로 공을 잘 차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유명한 봉사 설교자인 드보록이라는 사람은 눈이 잘 보여서 이곳 저곳에서 하느님의 진리를 설교했을까? 하느님께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느낀 바를 솔직하고 단순하게 입으로 표현해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다.

오늘, 부활 대축일을 지낸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이웃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믿는 이들의 사명이다.

“뭘 알아야죠.”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러나 이웃집에 돈 받을 것이 있다면, 말을 못해서 돈달라는 말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식이 서울에 가서 공부해 고등고시에 일등으로 합격해서 자랑하고 싶는데 아는 것이 없어서 자랑 못했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 손, 발의 기술과 내 가진 지식과 건강과 시간으로 내가 가진 신앙만큼 내가 사는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이웃에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것, 그런 행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복음 전파의 최고의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교일 것이다.

요십이 (609)

1억5천짜리 성당을 짓는다는 노송성당교우 멋있구나! **어함**

금년에 1억만 투자하여 성당을 짓는다는 동산교우 장하고나! **어함**

6천만원 교육관을 신축한다는 효자동교우 멋있고나! **어함**

변소지출도 돈도 없어 찼찼때는 성당교우 처량하고나! **어함**

생활성서 4 1985

생활성서는 생활속에서 성서가 전하는 참뜻을 찾고, 성서를 통해 얻은 빛을 모두에게 비출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4월호는 김대중씨 독점 인터뷰—민족의 한을 안고 의로운 길로를 비롯하여 삶 속의 부활을 특징으로 꾸렸고, 세례자 요한(정양모), 카인의 정체는 무엇인가(서인석), 성서여정 등의 기획으로 성서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교구청 홍보국 00041~3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미 성

全州 코아백화점 1층
미성핸드백 대리점

※취급품목
핸드백·벨트·지갑·기타
피혁소품

☎ 교환 72-0551-5

72-0561-5

김혜경(글라라)

주 단·포 목
홍수(회갑)웃갑
맞춤이불·카툰지
보드라운이불 전주특약점

◆년중 정기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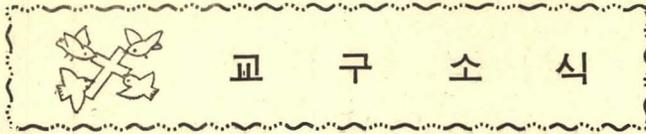
3월 25일~4월 25일

서 울 주 단

☎ 0453 5095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 **축!** 예수 부활 대축일 :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 채워지기 바랍니다

1. 교구 소속 신학생에 대한 직(職) 수여식

오는 4월 8일(월) 광주 가톨릭 신학대학에서는 연구과생 시종직과 학부 4학년생에 대한 독서직이 거행되는데 이번 직 수여식에는 교구 소속 신학생 6명이 포함된다.

시종직 : 이덕근(사도 요한) 주현동 본당 정천봉(베네딕토) 서학동 본당
독서직 : 김진룡(안토니오) 금암동 본당 문신구(비 오) 창인동 본당
이수현(라우렌시오) 황등 본당 강명구(요한보스코) 고산 본당

2. 꾸르실로 남성 21차, 여성 18차 수료자들 동창회 개최

일시-4월 20일, 시간-오후 2시~5시, 장소-가톨릭 센타 3층

3. M·E 전주교구 소개 모임 : 일시-4월 13일, 시간-오후 2시30분, 장소-가톨릭 센타 토의실

4. 교리교사 각 본당 회장 및 교구 임원, 각 지구 임원 모임

매월 둘째 월요일, 첫모임-4월 8일 오후 6시30분, 장소-가톨릭 센타 3층

5. 테클라 모임 4월 모임 변경 : 성바오로 여자 수도회 성소자 모임인 테클라 모임이 4월 14일로 변경됩니다.

오후 2시, 장소-성바오로 서원 ※ 5월부터는 다시 첫주에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펠리핀(Radio Seritas)에서 2년간의 연수를 마치신 엄 기봉 신부님께서 지난 4월 1일 귀국하셨습니다. 엄 신부님은 이번 부활주일을 기해 교구 발령에 따라 순창 본당에 부임하시게 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됨을 우리 같이 기쁘게 생각하며 더욱 훌륭한 사목을 기대합니다.

전주시 중노송동 2가 361-3

주임신부 김 용 태

보좌신부 김 의 철

사도회장 이 흥 재

**노 송 동
천 주 교 회**

사 계 관 ⑥ 0 9 6 9

수 녀 원 ② 7 0 3 2

사 무 실 ③ 7 0 3 2

◎ 미사시간 안내 : 월-오전 6시,

화-오전 10시30분·오후 7시,

수·금-오전 6시·오후 7시,

목-오후 7시, 토-오전 6시·오후 4시,

일-오전 6시·10시30분·오후 3시·6시

◎ 예비자 교리안내

일반-매주<일> 공식미사 후

직장인-매주<화> 저녁 8시

부녀반-매주<수> 오전 10시

1. **축!** 예수부활 : 부활 행사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여러분의 가정에 토끼는 잘 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토끼저금통은 사제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3주동안 더욱 열심히 토끼를 살찌워 4월 28일(성소주일)에 봉헌하세요

4. **본당 울뜨레아** : 오늘 저녁 8시

본당내의 꾸르실리스마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5. **본당 꾸리아 회합** : 다음주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6. **노송신협 장학생 선발 공고** : 선발인원 8명

자격-노송신협 조합원 자녀중 고등학교 재학생

단, 공무원 자녀는 제외
접수 마감-4월 20일 12시까지,
자세한 것은 노송신협에 문의하세요,
전화 ②4834, ⑥0954 번

7. **금주의 전례담당**. 제1조, 차주는 제2조가 담당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8. **축!** **결혼미사** : 다음주일(14일) 12시,

신랑-이덕재(발도로메오), 신부-김정순(아가다)

9. **청년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